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부교수 한 명 일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번역기량은 번역일군들의 실무적자질에서 기본을 이루는 필수적요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목이 높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외국어에 정통하고있다고 하여도 번역기량이 높지 못하면 번역의 질적수준을 보장할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10권 486페이지)

넓은 의미에서 번역에 속하면서도 서면번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는 통역에서도 통역기량이 매우 중요하다. 모국어와 외국어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훌륭한 통역원으로 될수 있는 전제로 될뿐이며 그와 함께 통역기량을 체득하고 부단한 연습과 실천을 통하여 완전히 련마할 때 통역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통역을 작업방식에 따라 크게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으로 나눌수 있다. 통역을 공식성 정도에 따라 전문통역과 일반통역, 분야에 따라 정치통역, 경제통역, 법률통역, 군사통역, 정보접수기관에 따라 청각통역과 시각통역 등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지만 이 모든 통역들은 다 동시통역방식이나 순차통역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시통역에서는 요점적기가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동시통역은 통역원이 발언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서 동시통역원은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시통역원은 일반적으로 완결된 문장을 듣고 통역하는것이 아니라 한 문장안에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토막을 단위로 하여 즉시 통역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동시통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적기억의 부담이 적으며 따라서 요점적기가 큰 문제로 나설지 않는다. 더우기 듣기와 들은 정보에 대한 종합분석, 전환, 말하기에 주의를 동시에 분리시켜야 하므로 요점적기를 할 정신적여유가 거의나 없게 된다.

그러나 순차통역에서는 요점적기가 통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순차통역은 발언자가 일정한 량의 발언을 마치면 통역원이 그에 대한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서 이 과정은 순차적으로 엇바뀐다.

순차통역에서 통역원이 발언자의 발언을 듣고 통역하는 발언토막은 발언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짧은 단순문일수도 있고 긴 복합문일수도 있으며 한 문장일수도 있고 여러 문장일수도 있다.

통역원이 이러한 원어발언을 듣고 정확히 통역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기억력이 좋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력은 제한되어있는것만큼 요점적기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통역원이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특성과 그 방법론을 옹계 체득하고 통역실천에서 정확히 응용해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전반적인 통역이 원만히 진행될수도 있고 오히려 지장을 주는 역효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통역에서 요점적기의 중요성으로부터 1930년대에 진행된 통역활동과 통역원에 대한 최초의 연구에서 벌써 전문통역원양성은 요점적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언급되었다.

1931년에 제이. 썬즈는 논문 《Le travail et les aptitudes des interpretes parlementaires》(《회의통역의 작업과 적성》)에서 국제관계가 확대되는데 맞게 전문통역원들을 키워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요리가 전문통역원의 필수적인 자질의 하나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통역원학교들이 세워졌으며 통역분야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던 제네바통역원학교에서 내놓은 통역원양성을 위한 교육학적방향에 대한 도서에서도 통역원교육과정안에 요점적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952년에 장 헤르베르는 소책자 《Le manuel de l'interprete》(《통역원수첩》)에서 요점적기가 순차통역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요점적기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1950년대말에 교수활동을 시작한 켈레스코위치는 1968년에 출판한 논문 《L'interprete dan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de langage et de communication》(《국제회의통역원언어와 교제》)에서 통역원의 기억과 요점적기기술을 순차통역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으로 강조하였으며 1989년에 집필한 도서 《Pédagogie raisonnée de l'interprétation》(《통역교육학》)에서 요점적기에 대한 실험연구결과를 내놓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가일즈는 논문 《Prise de notes et attention en début d'apprentissage de l'interprétation》(《통역교육의 초기 요점적기와 주의》)에서 요점적기를 얼마나, 어느 언어로, 어떤 부호들을 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각이한 의견이 제기되고있으며 따라서 각자가 자기 식의 방법을 만들어 그에 숙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자기에게 완전히 익숙된 부호들을 리용하여 통역시 혼동을 가져오는 현상을 없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요점적기를 원어로 하는것이 좋은가 아니면 역어로 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상반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지만 통역의 최종목적이 역어로 구사하는것이므로 역어로 요점적기를 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가일즈는 1995년에 집필한 도서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통역원 및 번역원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개념들과 모형들》)에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는 재생을 위한것이 아니라 통역원의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각적자극제라고 언급하였다.

프란츠 포치핵커는 2004년에 집필한 도서 《Introduction to Interpreting Studies》(《통역연구소개》)에서 요점적기가 통역원의 즉시적인 판단과 결심을 요구하며 따라서 명백히 통역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보충적인 부담으로 되는것만큼 이와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요점적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처럼 지난 시기 통역과 관련한 일련의 글들과 교육실천에서 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많은 경우 실험적연구와 개별적통역원들의 경험에 국한되었으며 요점적기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통역에서 요점적기의 본질적특성, 요점적기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개념과 특성

2.1.1.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개념

통역원에게 있어서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자질의 하나의 된다. 그것은 발언자의 일정한 발언토막을 듣고 이해한것을 기억하였다가 정확히 되살려 역어로 넘겨야 하기때문이다.

기억은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것을 머리속에 새겨넣고 보존해두며 다시 재현하거나 재생하는것 또는 그러한 능력을 말한다. 새겨넣은 지식과 경험이 명백하고 확고할 때 그것은 기억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되살리기도 신속정확하게 된다.

기억은 기억한 내용의 보존기간에 따라 장기적기억과 단기적기억으로 나눈다.

여러번 반복하여 새기고 재생해본 내용이 장기적기억으로 되는데 보통 2~3년 지어 수십년간 보존된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 등은 오랜 시일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상기할수 있다. 이처럼 새겨진 자료를 오래 보존하는 기억을 장기적기억이라고 한다. 장기적기억은 새겨지는 자료의 용량이 크며 내용이 보다 일반화되고 체계화되어 보존되는것이 특징이다.

단기적기억은 일정한 순간에 자료를 새기고 재생하는 기억으로서 지속시간이 불과 1~2분정도이다. 단기적기억은 한번 재생되고는 다시 재생되지 않으며 그 기억내용이 빨리 사라지는것이 특징이다.

기억방법은 크게 기계적방법과 의미-론리적방법으로 나눈다. 기계적방법은 주로 기억하는 대상들사이에 존재하는 외적연계에 기초하고있는 반면에 의미-론리적방법은 기억하는 대상들사이에 존재하는 내적연계에 기초하고있다. 의미-론리적방법에서는 발언의 중심내용과 기본사상을 추려내고 그것들사이의 연관을 밝히면서 발언을 이해한데 기초하여 기억한다.

통역원은 임의의 정황에서 여러 분야의 각이한 발언자들을 대상으로 통역을 하여야 하므로 외국어지식뿐만아니라 폭넓은 배경지식을 습득하여 장기적기억속에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지 통역을 할 때에는 발언자의 발언을 즉석에서 듣고 그것을 즉시 역어로 넘겨야 하므로 단기적기억이 기본작용을 한다. 그렇기때문에 통역에서는 통역원의 단기적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 장기적기억에 어음, 어휘, 문법, 문장, 문체적지식과 함께 풍부한 배경지식이 공고하게 보존되어있으면 통역시 통역원의 단기적기억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억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통역원은 기계적기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미-론리적 기억방법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통역원은 발언의 골격으로 되는 주요대상들을 기계적으로 기억하면서 장기적기억에 보존된 지식과 연관시켜 그것들사이의 의미-론리적연계를 기억하여야 발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수 있다.

통역원의 기억능력이 배경지식소유정도에 따라 차이내고 단기적으로 기억하였던것을 잊는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따라서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를 하게 된다.

요점적기는 순차통역에서 기억능력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원어발언을 정확히 통역하기 위하여 통역원이 기억과 원어발언리해에서 중점적인것을 찾아 적는 행위이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고유명사, 수자, 렬거되는 대상들과 같이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든 개별적인 대상들에 대한 기억(기계적방법)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다른 한 측면은 원어발언의 내용구성에서 골격으로 되는 대

상들과 논리적 흐름에 대한 기억(의미-논리적방법)재생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다.

2.1.2.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특성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특성은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속기, 일상생활에서의 요점적기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밝힐수 있다.

첫째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note-taking)는 속기(short-hand writing / stenography)와 근본적으로 차이난다.

일반적으로 서면화된 발언문이 없는 연설이나 회담, 담화내용의 전문을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 녹음설비를 리용하여 발언을 녹음하여 풀이를 할수 있지만 녹음설비가 없는 경우 규범화된 속기체계에 기초한 속기를 진행한다.

속기방법은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목적과 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여 순차통역에 맞지 않으며 속기방법을 리용한다고 하여도 통역을 정확히, 원만히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역작용을 할수 있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는 목적과 방법, 적는 량, 유효기간 등에서 속기와 차이난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속기는 우선 그 목적에서 차이난다.

순차통역에서 통역원은 발언을 들으면서 언어적 및 논리적분석을 하여 발언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는것이 기본이며 일단 통역원이 요점적기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통역을 끝내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목적은 달성된것으로 된다. 그리고 통역원마다 다를수는 있지만 발언토막이 기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짧거나 명백할 때에는 요점을 꼭 적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속기의 목적은 체계화된 간단한 부호로 발언전문을 적어 기록을 남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말하여 빠른 발언을 부호화된 글자로 받아쓰기하는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발언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소형녹음설비들을 리용하여 발언전문을 녹음하였다가 후에 녹음풀이를 하여 기록을 남기고있다. 그러나 녹음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속기를 하고있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속기는 또한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순차통역에서는 발언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하여 말그대로 그에 도움이 되는 요점들만 간단한 단어나 그 략어, 산수적기호들, 기하학적부호들을 리용하며 그 리용에서 체계성이 없다. 그러므로 한 통역원이 요점적기를 한것을 보고 다른 통역원에게 되살리기를 하라고 하면 전혀 할수 없는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속기는 이미 약속된 간단한 부호체계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리들의 사회생활과정에는 원문없이 하는 연설이나 토론, 담화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할 때가 종종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보통글자로써는 이 내용들을 빠짐없이 신속정확하게 기록하기 힘들다. 이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수한 부호로 제정된 속기법을 리용하게 된다.

속기원들은 이미 약속된 간단한 부호체계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전문속기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한 전문속기원이 기록한 내용을 다른 전문속기원은 쉽게 되살려낼수 있을것이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속기는 또한 적는 량에서 차이가 있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는 통역원의 기억력과 배경지식소유정도에 따라 적는 요점량이 각이할수 있다. 그리고 발언중에서 통역원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꼭 필요한 요점만을 신속히 판단하여 적게 된다.

그러나 속기에서는 전문속기교육과 훈련을 받은 속기원이라면 적는 량이 같다. 그리고 발언전문을 빠짐없이 적는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속기는 또한 그 유효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는 통역원의 기억재생에 도움을 주어 통역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으므로 통역이 끝나면 그 존재도 끝나게 된다. 통역에 기본 참가하는 기억은 단기적기억이며 단기적기억은 인차 잊혀진다. 통역을 할 때 통역원은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발언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통역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통역이 끝난 다음 통역원의 기억속에서는 발언의 세부적인 내용은 잊혀지고 그 기본틀만 남아있게 된다.

이와는 달리 속기는 영구적인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언어에 한하여 공통적인 부호체계를 쓰는것으로 하여 속기를 끝마친 후에도 시간의 흐름에는 관계없이 그것을 되살려 리용할수 있다.

표 1.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속기의 차이

구분 기준	통역을 위한 요점적기	속기
목적	통역을 위한 기억재생 도모	발언문의 영구보존
방법	개별적통역원에 따르는 방법	규범화된 속기체계
적는 량	기억재생에 필요한 최소량	발언의 전문
유효기간	통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끝난다.	장기

둘째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는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와도 차이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강의나 강연 등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장기적으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 요점적으로 그 내용을 적는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는 규범화된 부호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사람들에 따라 각이한 방법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목적과 적는 량, 유효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우에서 서술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특성에 비해볼 때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는 그 목적이 그 순간에 리용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고를 하자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는 빠른 발언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가능한것 최대한 많이 적는다.

또한 일단 적어놓은 요점적기는 앞으로 반복하여 리용된다.

표 2. 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와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의 차이

구분 기준	통역을 위한 요점적기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요점적기
목적	통역을 위한 기억재생 도모	앞으로의 참고
적는 량	기억재생에 필요한 최소량	기억재생에 필요한 최대량
유효기간	통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끝난다.	장기

통역원들은 이상에서 본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식의 요점적기표리를 창조하고 부단한 연습을 통하여 공고히 하며 통역

실천에 옮겨 구현해나가야 한다.

2.2.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은 요점적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느 어종으로 어떻게 적는가 하는 측면에서 분석하는것이 합리적이다.

2.2.1.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대상

요점적기는 말그대로 발언의 요점 즉 발언에서 중요한 내용을 적는것이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는 개별적대상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과 내용구성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요점적기에서는 이 두가지 측면을 위한 요점들을 적는것이 필수적이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는 우선 기억하기 힘들면서도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대상들을 적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이나 장소들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 처음 듣는 전문용어들, 수자, 렬거되는 대상들을 적어야 한다.

또한 발언내용구성 즉 발언내용의 골격으로 되는 대상들과 그 의미-론리적관계를 적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언내용의 골격으로 되는 대상들과 그것들사이의 의미-론리적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대체로 발언내용의 골격으로 되는 대상들은 략어로 표기하고 그것들사이의 의미-론리적관계는 산수적기호나 기하학적부호들로 표기하면 요점을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적을수 있다.

예: Factory managements are concerned with 3 types of inventories: raw-material inventory, work-in-process inventory and finished goods inventory.

[F/m 관심 3 재고: 원, 반, 완]

우의 실례에서는 수자와 렬거되는 대상들과 함께 발언의 골격으로 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대상들을 통역원자신만이 그 순간에 알아볼수 있는 략어로 적고 해당한 부호로 의미-론리적관계를 표기해주었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는 일단 해당 문장이나 단락의 통역이 끝나면 그 사명이 끝나므로 사용한 략어(실례로 F/m, 원, 반, 완)는 아무때나 보고 해석할수 있는 규범화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통역원이 그 문장이나 단락을 통역하는 과정에만 보고 리해할수 있으면 된다.

2.2.2.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량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의 목적은 원어발언을 받아쓰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발언자의 발언의도와 발언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고 역어로 넘기기 위한 기억되살리기를 도모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요점적기는 발언내용에 대한 리해에 기초하여 순간에 정확히 판단하고 하여야 한다.

발언내용을 들으면서 정확히 종합분석하지 못하면 어느것이 요점으로 되는가 하는것을 가려낼수 없고 불가피하게 기계적인 받아쓰기를 하게 되며 그러한 요점적기는 통역원

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가 필수적인것이지만 기본은 원어발언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역어로 넘기는것이며 요점적기는 기억재생을 도모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 개별적인 통역원은 자기가 듣고 이해한 원어발언내용에 대한 기억되살리기를 안받침할수 있을 정도의 요점적기를 하여야 한다. 즉 최대량의 기억되살리기를 보장할수 있는 최소량의 요점적기로 되어야 한다.

2.2.3.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언어선택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는 어느 언어로 요점적기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서면번역과는 달리 시간적제약속에서 원어발언내용을 즉시 역어로 청취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통역에서 요점적기는 역어로 하는것이 리상적이다.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를 역어로 하면 최종단계인 목표언어구사에는 유리하지만 반면에 첫 단계인 듣고 이해하는데는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언어를 선택하는데서 가장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원어와 역어, 지어 자기에게 익숙된 다른 언어 실례로 간단한 한자까지도 혼합하여 쓰는것이다. 즉 원어발언을 듣고 이해하면서 역어의 대역이 떠오르는 경우에는 역어로 요점을 적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역어의 대역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끌지 말고 원어나 이어의 언어로 요점을 적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2.4.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방법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는 우선 발언내용의 골격으로 되는 대상들과 그것들사이의 의미-론리적관계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각종 락어들과 부호들을 잘 리용해야 한다.

의미-론리적관계를 표시하는데서 많이 쓰일수 있는 기호나 부호들은 다음과 같다.

- : 라고 말하다, 라고 생각하다, 라는 의미이다
- ? 질문하다, 의문을 가지다, 그 리유는 ...이다
- = 같다, 의미하다
- ≠ 같지 않다
- 결과를 표시, 순차적인 다음공정을 표시
- ← 원인, 동기 등을 표시
- ↑ 높다/올라가다, 많다/증가하다, 좋다/개선되다, 점차 높아지다/강화되다
- ↓ 낮다/내려가다, 적다/감소하다, 나쁘다/악화되다, 점차 낮아지다/약화되다
- ∴ 그러므로, 결과
- ∵ 왜냐하면
- O 옳다, 긍정의 뜻
- X 아니다, 부정의 뜻
- 우리측
- △ 상대측

고유명사들은 최대한 원어로 혹은 음역하여 그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언내용의 골격으로 되는 대상들은 락어들을 많이 쓸수 있다. 락어인 경우에는 영어락어가 편리하며 이밖에 간단한 한자를 쓸수도 있고 우리 글을 간략해서 쓸수도 있다.

Ok 좋다, 동의하다, 긍정하다 ...

DPRK/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Rus 로씨야

Sui 스위스

Swe 스웨리에

S 과학

T 기술

C 문화

P 생산

PUFS 평양외국어대학

과/기 과학기술

농/축/양 농업과 축산, 양어

人大 인민대중

上 우, 우월하다, 높다

下 아래, 열등하다, 낮다

小 작다

大 크다

또한 지면을 아끼지 말고 한눈에 볼수 있게 크게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요점을 적는 것이 좋다.

순차통역을 하면서 통역원은 적어놓은 요점에 눈길을 박고 통역하는것이 아니라 발언의 의미-논리적내용에 대한 기억에 기초하여 통역을 하다가 상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요점을 보고 계속 통역하는것이 원칙이다. 요점을 깨알같이 한줄로 련달아 적으면 잘 알아볼수도 없고 발언의 논리적흐름을 따를수도 없게 되어 통역에 큰 지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요점을 한눈에 볼수 있게 크게 적으며 의미-논리적단위별로 아래로 뿔구면서 적는것이 좋다.

또한 요점적기를 한 부분에 대한 통역이 일단 끝나면 경계선을 그어주어 새로운 발언토막에 대한 요점이 이미 적은 요점들과 혼동되는 현상을 막는것이 좋다.

또한 한페이지에서 이미 요점을 적은 대상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 화살표로 끌어내릴수 있다. 발언과정에 이미 언급된 대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하여 요점을 다시 적을 필요가 없이 그 대상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적은것을 새로 요점적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끌어서 표시하면 심리적부담을 줄이고 시간적여유를 얻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면담이나 회담시 자주 언급될수 있는 사람이름이나 기관, 조직명칭 등은 미리 따로 적어놓아 요점적기를 하지 않고도 정확히 넘길수 있게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담이나 회담이 제기되면 통역원은 누가 참가하며 어떤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알아보고 해당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들에 대한 료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자주 언급될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해당 기관, 대상의 명칭 등을 요점적기수첩의 여백에 적어놓는것이 좋다.

3. 결 론

론문에서는 순차통역에서 요점적기의 특성을 속기나 일상생활에서의 요점적기와 대비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론하였다.

세계적으로 순차통역을 위한 요점적기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가 정립되지 못하고 많은 경우 개별적통역원들의 경험과 실험적연구에 머무르고있는 현실은 우리 식의 요점적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그것을 통역실천에 옮겨 구현해나갈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교육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순차통역, 요점적기